

최규락 황학삼 신용재 최재영
이규선 이은아 노경민 김승현



충북갤러리(인사아트센터 2층 인사동길 41-1)

'23. 11. 8. WED - 11. 20. MON / Opening. 23. 11. 08. WED. 14:00 / Artists Talk. 23. 11. 08. WED 15:30

충북갤러리 기획전

기도메타

PRAY META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충북갤러리 기획전

최규락 황학삼 신용재 최재영

이규선 이은아 노경민 김승현



충북청년작가

기도메타

‘23. 11. 8. WED - 11. 20. MON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서문
충북청년작가 ‘기도메타’ 展

손명희 학예사

충북예술인을 위한 전시 공간인 충북갤러리는 지난 전시개막으로 충북 근·현대 미술의 서막을 알리는 작고 예술인 8인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혁혁한 자취를 남긴 이들을 조명하여 충북미술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충북 작가들에 관한 관심과 지역의 미술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막전시에 이어 충북문화재단은 충북갤러리 하반기 기획전으로 《충북 청년 작가 8인전(최규락, 황학삼, 신용재, 최재영, 이규선, 이은아, 노경민, 김승현) - '기도메타'》 전시를 개최하여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예술적 고민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신神 또는 운運에 모든 걸 맡기는 최후의 전략을 뜻하는 '기도메타'라는 제하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예술과 삶, 생존의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모든 걸 작업에 걸고 노력하는 청년 작가들의 출구 없는 전략적 삶의 고단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청년 예술가로 살아남기에는 아직도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청년 예술인'이 단순 나이의 제한이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술 활동의 청년화를 외치고 있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전해지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여러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예술가로 살아가기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살아가며 현재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서도 한편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결정에 따른 예술적 고행과 치열한 미술계 시스템 속에서 버텨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배 예술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무엇보다 평생 굴곡진 역경을 감내하며 그들이 선택한 길을 운명처럼 헤치며 예술적 소신과 자긍심으로 작품활동을 해왔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수행을 기반으로 치열한 세상과의 관계 항속에서 저항과 타협, 소통을 위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내야만 하는 간절한 그 무엇일 것이다.

이번 《충북 청년 작가 8인전 -기도메타》은 일종의 8인의 자화상으로 아직은 예술적 성취를 위해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왜, 예술을 해야 하는지'라는 물음으로부터 작업에 앞서 설레는 마음과 시시각각 변화의 모험을 시도하며 현재 진행형인 그들의 작업을 규정된 카테고리 분류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영역으로 그들의 표현방식을 묶어보고자 했다. 본 전시를 통해 무엇보다 관객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며 새로운 실험적 표현영역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에 이들의 역량과 활동이 충북미술의 내일을 이끌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자아에 대한 고민과 내적 욕망의 표현>

이규선은 주로 자화상이나 동시대 노동 현장, 변방의 자연 등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비주류의 삶을 마음으로 그리는 작가이다. 즉 이규선의 그림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공명’이 울리는 작업으로 보는 이로부터 가슴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작가는 주로 화가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일을 경험했던 주변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이미지를 통해 솔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화상을 통한 내면의 심리상태, 노동을 통한 삶의 현장을 승화시키기도 하고 나아가 자연 속 비주류인 야생동물의 건재한 모습들에서 경이로움을 표하며 삶의 리얼리티를 전달한다.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이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가는 작가만의 회화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다른 공명을 전하기 위해 자신만의 자화상을 그려가고 있다.

노경민은 <아마도, 오아시스> 연작을 통해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성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가의 내적 욕망을 허름한 여관방과 남성 모델을 소재로 원초적인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작가의 붉은 방을 통해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했던 수동적 시선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회적으로 작가의 내적 욕망을 암시하도록 의도하여 보여준다. 붉은 방에 이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에서는 작가는 저마다 각자의 그림자를 지닌 존재들에 대해 공허함과 쓸쓸함을 결핍된 자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위로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은아는 작가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주변의 이야기를 휴대전화기로 저장하며 개인의 기억과 기록을 몽타주 기법으로 엮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가는 프랑스 유학 시절 작품 제작 및 보관의 어려움을 대체하기 위해 고민하며 시작된 영상 드로잉 작업에서 시공간적으로 자유로워지며 창작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다.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채집하여 감각적인 영상 편집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새로운 환영의 시공간을 만들어 내며 작가의 또 다른 세계로 관객을 초대하고 있다.

신용재는 자신과 주변의 모습이 변해 가는 상황들을 관찰하며 느끼는 감정들을 작업실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그리면서 기록한다. 인상주의자들이 빛을 좇아 화폭에 시간성을 붓의 터치로 표현했다면 작가는 주어진 조건에서 오는 긴장의 감정을 재빠르게 포착하며 거침없이 표현한다. 그것은 하늘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오는 감정의 설레임을 충실히 따르는 데 있다. 이제 작가는 옥상에서 바라본 하늘이 아니라 장소 특정적 장소를 찾아 주변의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적 불안과 해학의 서사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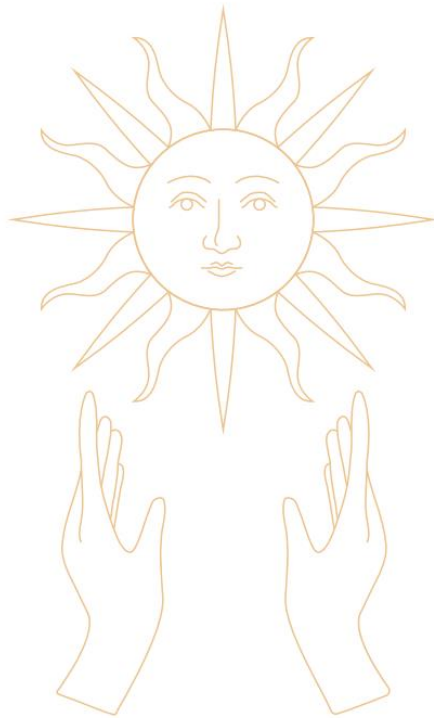
최규락 작가의 작품은 풍자와 위트가 가득한 은유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작가의 성품에서 풍겨 나오듯, 언제봐도 씩씩하고 유쾌한 인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감의 표출이랄까. 마라토너처럼 묵묵히 페이스에 맞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작가는 세상과 그들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를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가며 또 다른 세상과 조우하고 있다. 작가는 공예에 모태를 두고 있으면서 공예와 회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오브제의 조합으로 새로운 퍼즐게임처럼 작업을 즐기고 있다. 어릴 적 녹색으로 그린 자화상은 아직도 유효하다. 퍼즐 작품 속 혼종의 이미지는 그가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풍자 영역을 넘어 채집한 오브제가 혼합되어 앞·뒤, 전·후, 좌·우가 없는 퍼즐 게임으로 작업의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황학삼은 정통 인체 구상 조각에 천착하고 있다. 작가의 심리적 상태가 투영된 다양한 인체를 표현하며 인간에 대한 존재의 근본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기존 전시에서 보여준 웅크린 형상이나, 지지대에 매달린 존재들은 인간의 가장 불안하고 나약함을 작가의 감정이 투영돼 표현되었다. 최근작에서 보이는 얼굴 없는 작품들은 미완의 상태로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로서 세상에 내던져져 살아가는 존재들을 대변하고 있다. 자코메티가 실존에 대한 끝없는 물음으로 ‘존재와 허무 사이’에서 시점의 분열과 절대고독의 극한상태로 치달는 조각에 매달리며 불후의 미학을 남겼다면 황학삼의 작업은 몸과 얼굴을 만들고 또 뜯어내기를 반복하면서 표정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얼굴 없는 존재는 군상들을 통해서 찾지 못한 표현들을 찾고자 한다.

최재영에 대한 첫 작품의 이미지는 매우 정제돼 있었다. 근래에 들어 작가는 재현의 이미지를 벗어나 표현 행위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과감히 작가의 숨어있는 기질을 나타내고 있다. 형태는 어느 순간 뒤틀리고 과장되며 강렬한 색과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으로부터 작가는 일종의 쾌감을 맛보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기호들을 발견하게 된다. 무의식적 자유로운 행위로부터 우연히 얻어지는 물성을 경험하면서 가급적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회화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김승현은 ‘위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오브제 선택을 확장하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기 작업을 지속해 왔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며 작가의 작업이 변모되기 시작했다. 작업에 대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틀에 갇힌 위장 전술로부터 공간에 대한 확대된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며 작업의 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작가에게 오브제는 낯선 것이 아니다. 기존의 사물을 의인화했던 오브제들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개념과 심미적 조형성을 지닌 판타지 세계로 이끈다. 코로나19 기간에 전시장에 핀 연두색 형광 빛자루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동시대성을 대표하는 팝아트의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하였다. 낯선 우아함 ‘빛자루 설치’ 작업은 작가에게 새로운 조형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식 속에 갇혀있던 작업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획득하고 있다.

본 전시는 지난 선배 예술인 8인의 전시에 이어 충북의 젊은 기린아 8인의 연결로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충북 예술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발돋움의 될 것이다.



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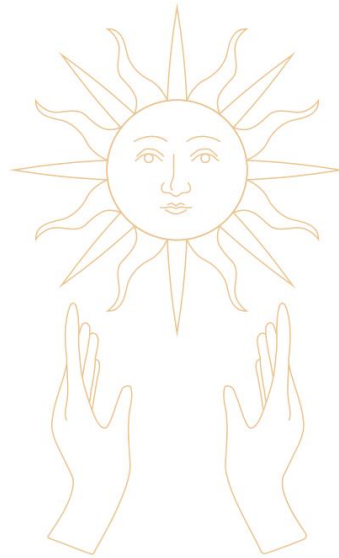
기도메타, 두 갈래 여덟 개의 결

홍경한(미술평론가)

충북갤러리 기획전 주제인 ‘기도메타’(praymeta)는 인간 능력 밖의 일들을 믿음 내지는 운(運)에 맡긴다는 뜻이다. 1) 모든 노력을 다했으니 이젠 마지막 전략으로 기도 밖에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해당 기획전의 주제 기저엔 불확실성에 대한 절박함이 녹아 있다. 예술을 매개로 ‘나’와 세상에 대한 경험의 감정적 깊이, 서사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 환기적 장치로도 사용됐다.

두 개의 섹션²⁾으로 나뉜 이번 전시에선 작가 여덟 명 개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동시대인들의 외적 독백을 공유할 수 있다. 동시에 절망에 직면한 존재들의 삶, 그 단면들³⁾과도 만날 수 있다. 공통적으로 기도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동시대인들의 내적 혼란을 상징과 은유로 담았다.

실제로 충북문화재단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지만 보편적 인간 삶과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감정들과 씨름하는 개인들이 처한 도전과 좌절, 상처에 대한 인식을 실존에 투사하여 보여준다. 또한 인간 조건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어두운 면들을 조명하면서 공동체 앞에 놓인 사회적 문제들을 자신만의 내레이션을 통해 드러낸다.



-
- 1) 신이나 절대자 또는 신령 등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행위인 ‘기도’(pray)와 게임에서의 효과적인 플레이 전략 및 전술을 뜻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다. 전시계획서상에서 역시 ‘신 또는 운에 모든 걸 맡기는 최후의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 2) 자아에 대한 고민과 내적 욕망의 표현 (이규선, 노경민, 이은아, 신용재), 인간의 심리적 불안과 해학의 서사적 표현(최규락, 황학삼, 최재영, 김승현)
 - 3) 단면엔 어느 직업 못지않게 열심히 작업하고 살아가지만 갈수록 고립되는 느낌, 잃어가는 방향, 세상과 단절되는 여운,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내일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한 예술가들의 현실도 반영되어 있다.

자아에 대한 고민과 내적 욕망의 표현

작가 이규선은 의식되어 나타나는 지속으로서의 삶과 상황을 현실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감정을 다룬다. 그림 속 주체는 생기를 잃은 듯 건조하며, 자신의 생활 반경 내의 일상은 특별할 게 없다. 대신 그의 캔버스엔 삶에 관한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적어도 작품이 드러내는 삶은 인지적-지각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자,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관을 관통한다. 을씨년스러운 작업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자화상이 등장하는 <페이드 인>(fade-in, 2016)과 <페이드 아웃>(fade_out, 2016), 그리고 <곰팡>(2018), <화려한 노동꾼>(2021), <지나갔으면 한다>(2022)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들 작업은 화자는 유형과 무형의 끝이 맞닿아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나’를 축으로 한 되풀이 되는 삶의 노정을 평범한 풍경 사이에 위치시키지만, 우리의 삶이 저마다의 장면들을 끌어안은 채 순환-반복되고 있음 역시 일러준다. 그건 매우 모두 일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이 우선한다는 게 특징이다.

작가 노경민의 작품은 물리적 공간과 실존적 관계를 붉은 화면에 담아낸다.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일상이 유발하는 스펙트럼이 신체와 정신 내에 누적되고 쌓여 흩어지는 과정 내 형성된 흔적들이 산포되어 있다.

그의 작업은 애써 그럴싸하게 치장하거나 꾸민 자국이 덜하다. 밀폐된 곳에서 느끼는 막막함, 절망을 대하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감정이 있다. 그건 무력감내지는 헛헛함, 결핍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고독>(2023), <아무도 없는>(2021), <낙원>(2019) 등의 몇몇 작품에선 짙은 쓸쓸함이, 일부에선 거친 황량함이 엿보인다. 작가의 말마따나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처연함과 쓸쓸함”은 확연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면 내 부유하는 실재와 망각 간 갈등이다. 그것은 존재이기에 체감하는 생의 단상들, 경험의 산물들이다. 그리고 그 산물들은 돌고 돌아 아련한 공감을 선사한다. 우리 누구나 애달픈 조각 하나씩은 갖고 살기에, 그렇게 세월에 익어가기에.

작가 이은아의 영상작업은 관계의 기록이다. 내부엔 ‘사건’이 있다. 그것은 직조된 가운데 개간되며, 거부할 수 없는, 소소하거나 중대한 시나리오를 읊는 배우처럼 나와 관계된 시간의 층을 세트 내에 존치시키듯 묘사한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세트 내에서 순환, 반복하는 삶은 숙주인 원형을 이탈하지 못하며, 한편의 드라마로 기록된다. 4)

4) 그의 작가노트에는 “나에게 있어 기록은 낯선 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삶을 소화하고 과거와 현재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고 적혀있다. “장소, 상황, 공기, 냄새 그리고 그날의 전화 통화 등 그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순간의 조각들을 꿰맨다. 작업을 함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작가가 작품과 맺는 관계에 대한 정당성이다. 작가 자신이 그 작업 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가? 이것은 진실인가? 라고 자문할 때 나는 결국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업이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 있음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고도 썼다.

시청각을 넘나드는 그의 작품은 “사적인 내용이 타인의 기억과 경험에 기대어 공감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이은아) 것이지만 그자체로 다면적인 관계의 장소라는데 의미가 있다. 특별한 지점은 이은아의 작품들의 경우 작품자체가 발화점으로 존립하지만, 보는 이들 각각의 조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체 환경에 의해 구현되는 ‘의식의 조각’으로, 의식의 조각은 작가 자신이 집중해온 의제를 예술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재구성하고 보편적 ‘관계망’으로 전치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 **신용재**는 습관적으로 바라본 하늘과 자신의 삶을 묶어낸다. 야외 작업을 주로 하는 그는 무시로 변화하는 자연을 그리며 삶의 유효성에 대해 생각한다. 그곳엔 예술가로서 존재와 그림의 의미에 대한 고민도 녹아 있다. 인연, 상실, 그리움이 집적된 공간이 그에겐 곧 하늘이다. 그에겐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어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의 그림엔 어떤 환상이 들어 있지 않다. 생명체와 자연의 빛, 구름 등이 직관적으로 표현된 일단의 작품들은 어쩌면 환상을 단념하도록 요구하며, 대상과 감정의 보합은 오히려 환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단념토록 만든다.

부각되는 건 감정이다. 그리고 현실에 관한 감정적 삽입은 합판을 깎아내고 다듬는 매체 변화적 태도까지 읽을 수 있는 <산은 팔레트가 되고 하늘은 그림이 된다>(2022) 등의 작업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인간의 심리적 불안과 해학의 서사적 표현

작가 **최규락**은 자신이 경험한 사회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풍자의 방식으로 풀어내왔다. 범주는 넓다. 정치, 예술, 대중문화를 아우른다. 그렇다고 극적으로 신랄하거나 이념적 편향성을 띠진 않는다. 사회부정적·비판적 작업에서 쉽게 열람되는 진지함 혹은 근엄함, 무게감도 쏙 뺐다. 그래서 해학에 가깝다.

최근 작업은 풍자의 결에서 벗어나 있다. <평화시장 비둘기>(2023)나, <달아 달아 밝은 달아>(2023) 등의 작품은 이전의 익살스러운 풍자와는 달리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으려는 여운이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삶에 대한 진지함을 배경으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 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와 같음된다.

근작과 구작 간 차이라면 우리의 진짜 삶, 좀 더 대상에 충실하게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유명 정치인과 예술인 등이 등장하던 이전의 시리즈 보다 낫다.

작가 황학삼은 당대 직면한 불안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대 인간의 삶을, 그리고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몸통만 남은 존재’⁵⁾로 다룬다. 팔을 가지런히 한 채 홀로 또는 군중으로 배치된 몸은 극도의 불안을 내재한 조각이면서 ‘삶과 존재’의 관점에서의 기술(記述)이다.

그의 몸은 곧 삶의 덩어리이자 불안을 기억하는 몸이다. 세상에 놓인 무언가를 삼키지 못한 뭉치들이다. 하지만 그의 신체는 살며 살다 간 혹은 이미 ‘살아낸 자들’의 함구된 다언(多言)이다. 그런데 그 말들이 참으로 텅텅하면서도 아리다. 인간 사이유 없는 삶 없듯, 무수한 사연을 간직한 몸이기 때문이다.

황학삼의 작품은 언어를 규정하는 표정의 ‘거세’로부터 출발하나, 온전히 개인의 영역은 아니다. 동시대 인간들의 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깊다. 알 수 없는 공허감 혹은 무언가가 응결(凝結)되어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의 실체도 형상 너머에 부유하는 심적 내재율(內在律)⁶⁾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사르트르 Jean Paul Sartre의 《구토》나 《존재와 무》에서 마냥 인간에게 있어 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의 연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재영 작가의 메마른 식물(식물이 있는 풍경)에선 비의도성 뚜렷한 붓질의 투박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거침없는 붓질이 두드러지고, 물감을 쌓고 뿌리고 긁어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질감이 돋보이는 화면은 눈과 사물, 재현으로써의 기록과 인식으로써의 기록을 뒤로 밀어낸다.

근작은 ‘그리다’가 아닌 ‘표현’에 가치를 둬으로써 회화의 맛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는 “설명적 이미지의 재현에 많은 피로감을 느낀”(최재영) 나머지 자신과 자의식의 미결정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다.

변화는 주체(나)가 주체일 수 있는 욕망, 또 다른 주체인 동시에 자아가 다른 주체와 관계 맺도록 매개하는 상징적 대타자의 웅립을 허락하는 또 다른 욕망의 변주까지 읽게 한다. 특히 <조팝나무>(2023) 시리즈와 <botanical move>(2023) 연작 등을 포함한 풍경은 중첩과 시공의 결에 의해 더 이상 원래의 것이 구별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 새롭게 존재하고, 오랜 시간 쌓인 작가의 붓질이 재현을 넘어 작가의 감각적 체험이 만들어낸 시공의 콜라주임을 가리킨다. 여기엔 ‘물감을 바르고 걷어내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다차원적인 시간성이 배어 있다. 그는 현재 회화가 ‘스스로 예술화’되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몸과 얼굴을 만들고 또 뜯어내기를 반복하면서 얼굴의 표정을 만들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복잡하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도 규정짓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표정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작가노트에 썼다.

6) 내재율은 잠재적 운율로,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진 않으나 은근히 느낄 수 있는 운율을 말한다.

김승현 작가는 ‘위장’이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했다.⁷⁾ 그러던 중 회의를 느꼈고, 이후 오브제에 집중하는 작업으로 전환했다. 즉, 그동안은 “위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숨기고 가리고 피하려는 작가 자신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 대상과 내가 바로 마주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작가는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 ‘변화’를 갈망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plastic world : circle>(2023)이다. 꽃으로 만든 거대한 원형으로 먼지를 털어 낼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어져 꽃히는 형상의 작품이다.

천장에 플라스틱 빗자루를 늘어놓은 <plastic world>(2022)도 같은 맥락이다. 꽃덩어리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매달려 있다. 직선인 ‘빗자루로 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상의 하찮은(?) 존재를 선택한 뒤 의미를, 생명력을 부여했다. 당연히 사물의 본래용도는 폐기되고 의미 또한 달라졌다.

<plastic world : circle>이든 <plastic world>던, 이들 작품에선 특정한 메시지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낮선 우아함>(2021) 시리즈와 <circle>(2021) 연작도 마찬가지다. 조형적 실험에 집중된 듯한 느낌이다. 일상의 흔한 사물이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특별한 위치로 자리이동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낯설고 생경함을 선사하고자 한 것도 그 연장이랄 수 있다. 해석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무언가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작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⁸⁾ “모든 것이 예술이고 누구나 예술가다’라는 어떤 작가의 말을 나는 참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백남준이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조는 요셉보이스 Joseph Beuys다. 김승현과 보이스의 말마따나 우리 주변의 어떤 것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셉보이스는 이런 말도 했다. “예술은 현실의 혁명적인 원동력인 동시에 모든 사회적 행위의 근간이다.” ‘사회적 조각’(변화를 위한 조각, social sculpture)을 언급하며 사용했다. 예술은 민주적 사회를 위한 봉헌이자, 인간적인 조각(따뜻한 조각), 올바른 방향을 위한 조각(사고적 조각)의 일부다. 삶을 보다 인간적 사회로 변화시키는 게 예술이라고 한 셈이다. 결국 김승현은 자신의 조각·설치(예술이)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소실점, 그 끝엔 무엇이 있는지 말이다.

7) 작가노트에 그리 쓰여 있다. <가려진 나, 가리는 camouflaged>(2019), <CAMOUFLAGE>(2017) 등의 작품을 말하는 듯하다.

8) 예술가는 늘 ‘예술의 이유’를 물어야 한다. 젊은 작가들 중엔 약간의 인기가 있다하여 주구장창 똑같은 작품을 복제하며 ‘스타일’이라고 우기지만, 실은 창의성 부족이요 현실과의 타협이다. 당대성을 반영한 ‘혼돈의 실험실’(하랄트 제만: Harald Szeemann)이 예술이다.

미술을 통한 타자의 존재와 의미

여덟 명의 작가가 참여한 ‘기도메타’전은 크게 두 갈래에 놓이지만 예술가마다 각각의 나침반을 갖고 있다. 9) 어떤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제대로 기능한다는 차이는 있으나 저마다 일정한 자침(磁針)을 소유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번 전시에선 그 나침반이 지시하는 곳을 응시하는 것도 전시를 이해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한 타자의 존재와 의미를 고민해본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 그림 속에서 유랑하며 살아가는 작가들의 시선 끝에서 작성된 사회를 재발견하는 것도 기획의 흥미로움이다.

작가들은 때론 신화화된 주체를 제거하며 소외되고 억눌렸던 비주체들을 여러 매체 위로 떠올리는 방식으로 그 시선을 보여준다. ‘나’라는 화두를 배척하진 않으나 대체적으로 대상을 빨아들이고 종속시키는 것을 배격하며 존재자의 위치를 탈각시켜 주변을 병렬적·평활한 관계로 옹립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전체 속에서 개별을 말하고, 개별 속에서 전체를 가늠한다.

이번 기획이 지닌 또 하나의 의의는 시각 너머 자기중심적 인간 본성의 재고와 타 존재에 대한 고찰, 미래 예술을 향한 갈망을 넘어 우리를 다시 현존의 인간으로 되돌리려는 작가들의 고민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대성이 약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예술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관한 고민이 유효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나아가 이번 전시가 다양한 미적 가치관이 대중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대화하는 장(場)이라는 점 역시 인정된다.

9) 기획자의 입장에서선 구획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PART 1

:자아에 대한 고민과 내적 욕망의 표현

이규선
노경민
이은아
신용재

이규선

LEE KYU SUN

‘삶과 사람, 유기적 관계에서의 회화성’

나는 자화상을 그리고 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예의를 차린 질문들, 구태의연함은 평범함과 유사한 걸까?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매번 색다른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에 가까울 것이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평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

수많은 이야기, 대화, 시간의 흐름, 반복적인 일상과 군상들의 얼굴들.
이미지, 즉 어떠한 상(像).
흩어지고 부서지고 떠오르는 크고 작은 일상의 경험과 삶의 조각들.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에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고통을 느끼고 붙잡으려 번민한다.
때로는 폐색감을 느끼기도, 때로는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는 삶 속의 질긴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의 사람들.
체화된 순간들과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는 이미지 때문이다.
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담아내고 표현하고 싶기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 인연과 만남의 성질들이 교차를 이루고 물성들이 혼연 되는, 그러나 의도한 것만
은 아닌 Self-Portrait.

직면된 자화상.

피할 수도 모른체할 수도 없는 삶의 상황들. 유기적인 형태로 항상 맞닥뜨려야 했던 순간들.

나는 나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떠한, 다른 형태로 표출하고도 싶었으나, 또한 나와 자아의 객관성에서의 한계에 직면했을지도 모른다.

나이프의 터치나 유화가 갖고 있는 오묘하며 발생적인 표현들, 물성들의 교차가 어떤 형상을 구성하며

-이미지를 헤아리고는 있으나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행위와 방법은 의도하였거나 인지된 움직임은 아니었기에 획을 오가는 브러시의 방향은 추상성을 품은 무의미한 붓질로 현현하는 것이다.

당연한 소리, 당연하지만 살아내야 하는 평범한 것이며 당연한 것인 삶.

삶 속에서의 피할 수 없는 경험과 유기적인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은 삶과 일상.

세포들이 뭉치고 흩어지며 움직이는, 생동하는 인생. 필연적이고 때론 치졸하기도 한 유기적인 관계들.

그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의 회화성을 찾아내고 집착하는 몸부림.

가깝지만 멀고도 먼 Image(像)인 것이다.

그렇게 그려온 자화상.

그렇게 어차피, 나는 또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렇게 피할 수도, 모른체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내듯 떼려야 뗄 수조차 없는 관계성 속에서

아마 나는 또 그릴 것이다.

그렇게 그리는 나의 자화상은 자화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규선, <도랑>, 2022, Oil on canvas, 182 x 182cm



이규선, <지나갔으면 한다>, 2022, Oil on canvas, 182 x 182cm



이규선, <어디서 많이 본 듯 하다>, 2023, Oil on canvas, 162 x 162cm



이규선, <농수산물시장>, 2021, Oil on canvas, 91 x 117cm



이규선, <아무것도 없다>, 2023, Oil on canvas, 61 x 73cm

노경민
RO GYEONG MIN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사람은 누구나 결핍 하나씩은 가지고 살잖아”

친구가 내게 말했다.

나를 위로하려던 친구의 말이 나는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나의 결핍을 견디는 시간.

무력감과 절망감에 숨도 쉴 수 없이 아팠던 시간 속에 있었다.

한낮의 빛은 시간이 멈춘 듯 진공상태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다.

그 속에서 나는 부유하는 먼지처럼 방황하듯 떠다녔다.

힘이 들 때면 벤치에 주저앉아 지나는 모든 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내 앞을 오가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각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 오후의 그림자는 검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긴 그림자를 짊어지고 버티고 서 있는 것들은 모두 처연하고 쓸쓸해 보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험들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감정들이다.

누구나 우리 보통의 존재들은 각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산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자 그림은 안온하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햇살을 받아 드리워진 그림자는 켜켜이 쌓인 상처로 얼룩지고 거칠게 표현된다.

이번 작업에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처연함과 쓸쓸함이 들어있다.

아마도 이 그림이 우리의 상처를 낮게 해주긴 힘들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



노경민, <낙원>, 2019, 장지에 주묵채색, 126.0×189.0cm



노경민, <하바나 모텔>, 2018, 장지에 수묵채색, 148.0×98.0cm



노경민, <행복하세요>, 2019, 장지에 주묵채색, 59.0×9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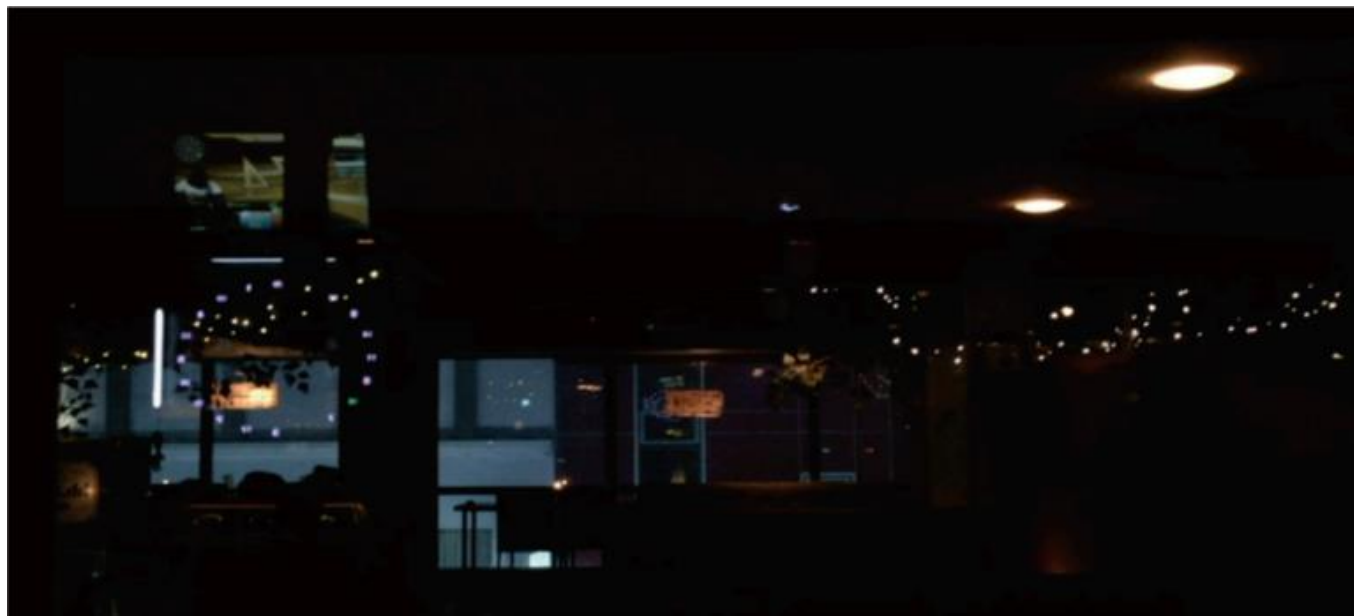
노경민, <붉은나무>, 2021, 장지에 수묵채색, 67.0×53.5cm

이은아
LEE EUN A

나의 작업은 '내가 있는 곳'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켜켜이 쌓이는, 연속되는 하루의 중첩을 나는 개인의 역사라 여긴다. 그리고 이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나에게 있어 기록은 낯선 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삶을 소화하고 과거와 현재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나는 작업을 마치 운동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장소, 상황, 공기, 냄새 그리고 그날의 전화 통화 등 그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순간의 조각들을 꿰맨다. 작업을 함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작가가 작품과 맺는 관계에 대한 정당성이다. 작가 자신이 그 작업 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가? 이 것은 진실인가? 라고 자문할 때 나는 결국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작업이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 있음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기록의 측면이 강한 영상매체를 사용하여 이를 감상하는 각자의 개인적 경험을 두드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는 이에 따라 개인의 삶을 대입시켜가며 또 다른 기억을 만듦과 동시에 타인의 사적인 경험이 당신의 보편적 경험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살아있는 매 순간을 영감 삼아 이를 기록하고 영원으로 박제시켜 현실의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고 기록한 순간은 기억으로, 그 기억은 또 다시 기록으로 덮히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개인의 서사가 미술관, 갤러리 등의 공간에 놓여지게 되면서 사적인 이야기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경험을 제시하게 된다. 창작 활동의 전반적인 작업 특성상 보여지고 읽혀지고 들려야만 하는 일종의 '강제성'이 허용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관음에 기초하는 타인의 연애사, 사적인 통화 등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청할 수 있는 공간에 놓여짐으로써 나의 작업은 또 다른 옷을 입게 된다. 그렇기에 나의 작업은 비로소 설치가 된 후에야 추상적으로나마 온전히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사적인 내용이 타인의 기억과 경험에 기대어 공감되기 까지의 과정이 있어야만 내 작업은 '미술 창작'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나의 태도는 '보고싶으면 보고 안 보면 그만' 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보는 이에 따라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흘러보낼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가 미술관에 놓여짐으로서 이른 바 그럴 싸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며 또 한 번 작동(activ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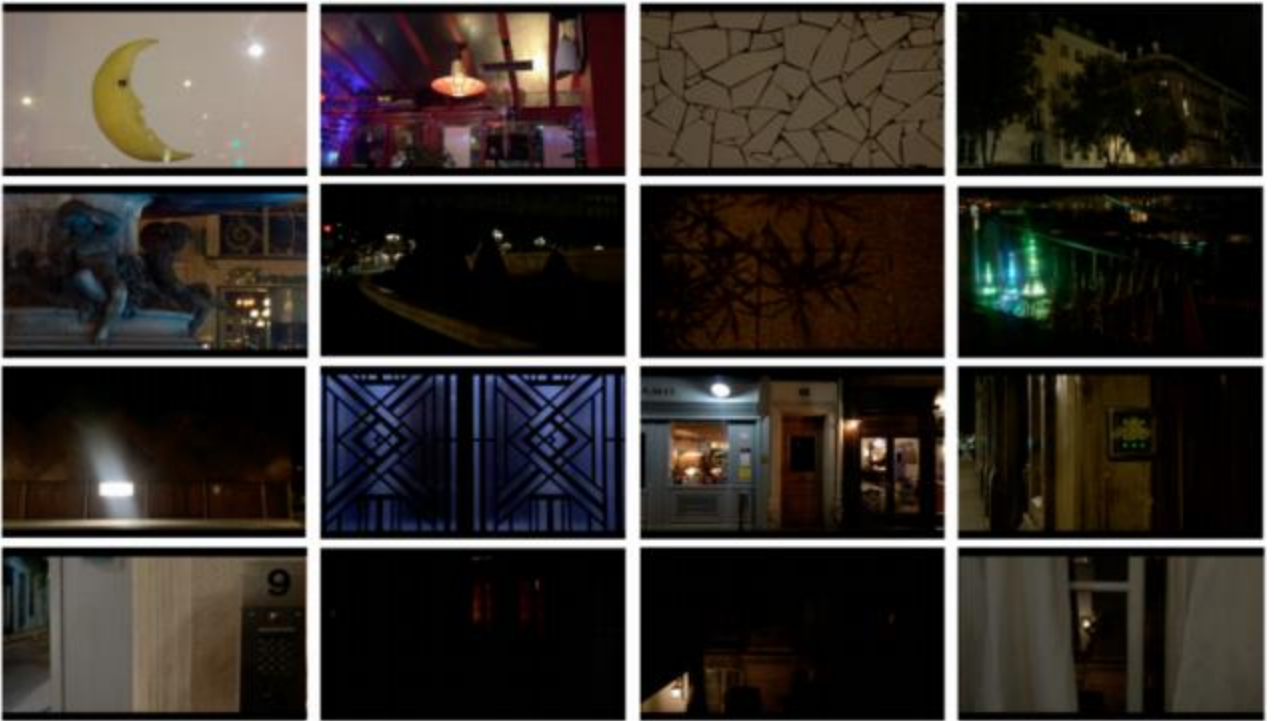
이은아, <In The Room-N°13>, 2017, video, 14'10" (re-edited in 2023)



이은아, <Bavardage>, 2016, video, 6"46
<https://vimeo.com/160356824>



이은아, <Bavardage 5 years later>, 2021, video, 11"46
<https://vimeo.com/499209904>



이은아, <From somewhere>, 2016, video, 7'36" (re-edited in 2022)
<https://vimeo.com/717630896>



이은아, <Erica's fable>, 2022, 2channel vidéo, 2'32"
<https://vimeo.com/817926792>

신용재

SHIN YOUNG JAE

자신과 주변의 모습이 변해 가는 상황들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들을 하늘을 그리면서 기록한다. 때론 장소의 이동을 통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곳의 조건에 순응한다. 자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늘을 그리고 빛을 그리고 색을 그렸다. 해가 지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느슨한 것과 조여오는 감정에서 우연히 잘 되는 그림과 잘 안되는 기분을 느꼈다. 천천히 그릴 때와 빠르게 그릴 때의 시간을 가늠한다.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반복된 행위에서 낳은 결과물들이 자신이 회화하는 방식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자연과 대화하기’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미원면 화창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장소의 이동은 매번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번 경험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도심의 작업실 옥상에서 산과 들이 보이는 장소로 옮긴 후 옥상에 화판을 펼칠 때와 자연 속에서 화판을 펼치는 기분은 매우 달랐다.

첫 번째 바라보는 풍경으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여유로움에 대한 느낌인데 마음의 조급함이 변하였다. 안정에 대한 변화이고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이사할지도 모르고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것이다. 여행으로 잠깐 느끼는 자연의 모습이 아닌 이 환경에 계속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우선 작업에 간여하였다.

현재까지 작업은 보통 마음에 설렘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림을 그리기 전 ‘그림을 그려야 해’라는 명령을 내리는 가장 큰 감정이 설렘이다. 하늘을 보러 옥상 계단을 올라갈 때, 옥상에 혼자 올라섰을 때 설레는 감정이 일어난다. 보이는 것은 하늘뿐이고 어떠한 색을 쓸 것인지에 대해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빠르게 붓질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자연 속에서 하늘 외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김새들이 모인 이미지에서 우연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다. 첫인상에 떠오르는 반응을 그려야겠다 다짐하였다.

‘산은 팔레트가 되고 하늘은 그림이 된다’

우연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팔레트에 쌓인 물감의 모습은 색도 형세도 산등성이와 닮아 있었다. 팔레트에서 자연의 색에 견주기 위해 물감을 의식적으로 섞으며 우연히 일치하는 지점과 무의식적으로 계속 쌓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하였다. 자연을 통하여 확장된 표현의 방법과 그리는 대상에 대한 변화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신용재, <산은 팔레트가 되고 하늘은 그림이 된다>, 2022, Acrylic on wood panel, 227.4x488cm



신용재, <자연과 대화하기>, 2022, Acrylic on wood panel, 54.0x68.0cm

PART 2

:인간의 심리적 불안과 해학의 서사적 표현

최규락
김승현
황학삼
최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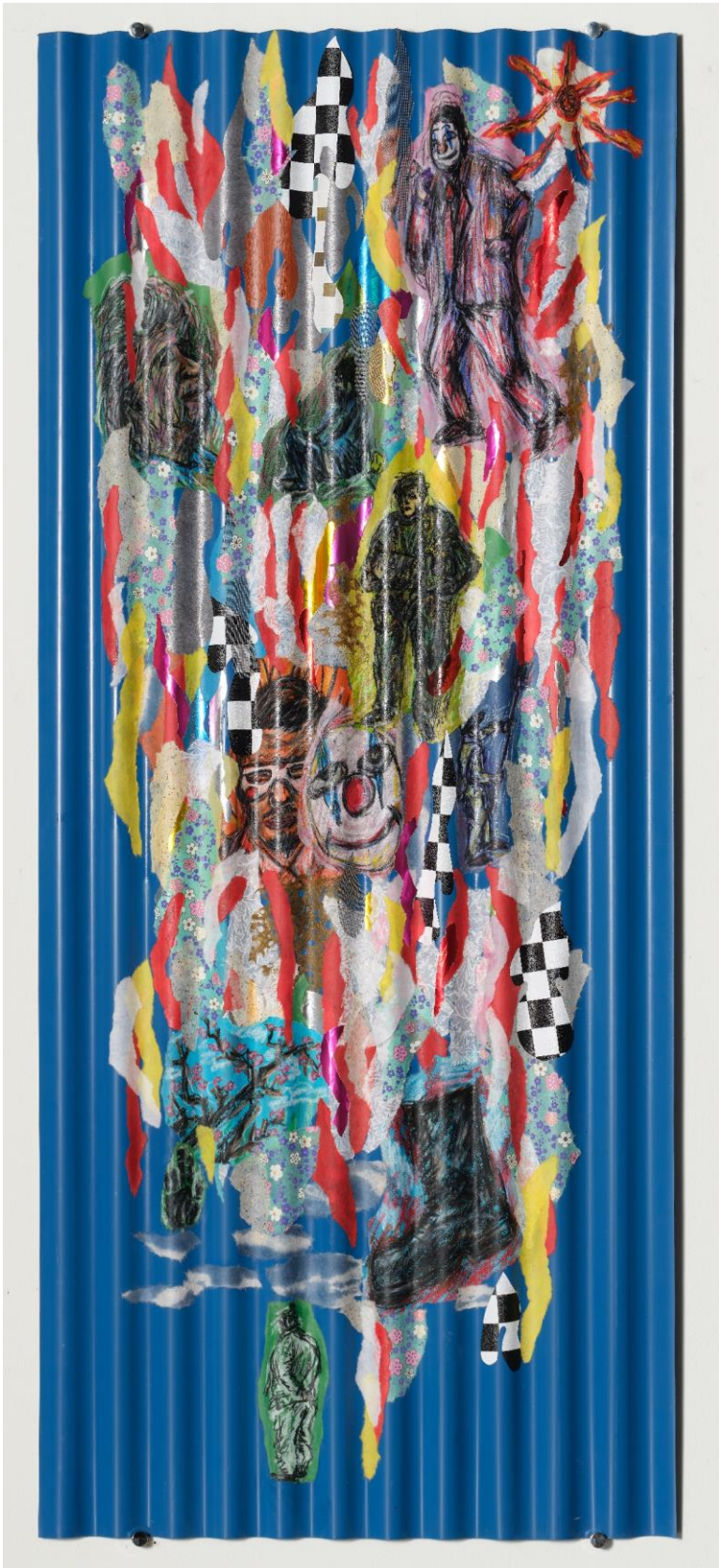
최규락
CHOI KYU RAK

나는 유치원 시절 그린 그림들을 여러점 보관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림 한점은 나의 자화상이다. 둥근 얼굴, 둥근 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얼굴이 녹색이다? 너무 오래 전 기억이라 무슨 생각으로 녹색을 선택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발표회를 준비하는 선생 입장에서 황당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반 이상은 화가일 것이다. 물론 나의 대답도 화가였고 지금도 그 꿈을 여전히 쫓고 있다. 요즘들어 버려진 오브제와 결합한다거나 흙이 아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작업의 재료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의 주제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모태 언어가 흙이라는 것 또한 변함없지만 30여년 전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작업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흔히 작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전업 작가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정해진 작업을 시작하고 잠들기 전까지 작업에 대해 고민하며 달이 뜨고 닳아 울면 다시 잠을 청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꾼다. 어린 아이처럼 크레파스와 종이 한 장만으로도 행복한 시절이 모두 있었겠지만 40대의 현실 안에서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일 수도 있다. 작업이라는 것이 마치 마라톤 같다고 해야 할까? 나 또한 달리다 보니 벌써 반을 온 듯한 기분이다, 뒤에서 출발한 사람, 앞서 달려 나가려는 사람, 넘어진 사람, 또는 중간에 완주를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각자의 루틴을 지키며 정해진 구간을 지나 결승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은 모두 같다. 물론 모든 아티스트들이 생각하는 결승점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나만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중이다.



최규락, <N극, S극>, 2023,
Seet zinc, oil pastel, Korean paper
180 × 85 × 3cm



최규락, <비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2023,
polycarbonateboard,oilpastel, korean paper
180 × 85 × 3cm



최규락, <nice meat, you>, 2023, 한지에 오일파스텔, 90×60cm



최규락,
<퍼즐게임>, 2023,
polycarbonateboard,oilpastel, korean paper,
180×85×3cm(5점)

김승현
KIM SEUNG HYUN

이전에 ‘위장’이라는 주제로 작품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작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반성없이 기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에 회의를 느껴, 오브제 그 자체에 집중하는 작업을 해왔다. 최근 작업을 하며 내가 위장이라는 주제를 왜 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숨기고 가리려 위장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다. 예술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약점, 즉 숨기고 싶은 부분을 대하는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숨기고 가려 피하는 것, 혹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숨기고 가리려 했던 대상과 똑바로 마주한 적이 있는가? 난 언제나 피하는 선택만을 해왔던 것 같다. 위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숨기고 가리고 피하려는 나를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 대상과 내가 바로 마주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내가 숨기려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예술장치를 통해 표현하겠지만 내 안에서는 금기시 했던 영역을 표현한다는 쾌감이 있을 것 같다.

더이상 내가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갇혀 도피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 울타리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내용의 변화, 표현의 변화, 관점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전진하고 싶다. 나에게 변화한다는 것이 편한 느낌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주저하지도 않는 편이다. 변화하고 싶다.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하며 이제는 내 중심을 굳게 세워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고 내 분신이 될 작품에 그것을 투영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김승현, <Plastic world>, 2023, 오브제 집적, 200x900x200cm



황학삼

HWANG HAK SAM

언제부터인가 분주한 삶속에서 찾아오는 밤의 고요함과 정적이 더욱 익숙해져 버렸다. 낮에는 왠지 모를 무력감과 피곤함이 점차 어두워지는 시간과 조용함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매일 그렇듯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나의 아지트 속에 들어와 멍하니 있다가 습관처럼 사람을 흠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머릿속을 스치는 일상생활의 일들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요동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전 작업에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생각들을 몸짓과 형상으로 나타내었다면 이번 작업은 직감적으로 드러나는 표면과 흠이라는 물성에 집중하였다. 몸과 얼굴을 만들고 또 뜯어내기를 반복하면서 얼굴의 표정을 만들지 못했다. 복잡하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도 규정짓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표정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과 노동력이 물성으로 드러난 군상들의 몸에서 찾지 못한 표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황학삼, <서 있는 사람들>, 2020, 합성수지, 60x45x190cm



황학삼, 무제, 2022, 시멘트, 80x50x90cm

최재영

CHOI JAE YOUNG

최근 몇 년의 작업 과정에서 설명적 이미지의 재현에 많은 피로감을 느꼈다. 사물이나 현상의 묘사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온전히 나의 기질을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릴 때 나타나는 일종의 습관 혹은 기호들을 발견하였다. 그것들은 붓질의 운동성, 선호하는 색 조합, 화면 내 비례, 대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났다. 마치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는데, 식물의 유기적 형태나 꽃꽂이를 할 때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40년 넘게 플로리스트로 일하신 어머니의 유전적 영향일까? 어려서부터 ‘글라라 꽃방’에서 봐 온 것들에 대한 각인의 결과일까?라고 생각하며 간간이 그리던 식물이 있는 풍경을 다시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식물은 비교적 변형과 왜곡이 자유로웠다. 그만큼 그림 그리는 행위가 과감해져 몸짓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작업시간이 길어질수록 행위의 중첩에 의해 생긴 깊이감, 불명료함과 더불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성적 사태를 경험하면서 마음에 드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물감을 바르고 걷어내고를 반복했다. 때때로 정신이 맑지 않을 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표현들이 매력적이었고 이는 예측 가능한 이미지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없는 작업 방식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였고 망치면 다시 그렸다. 지금도 더하고 빼 나가며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도들의 반복으로 독자적인 회화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최재영, <플라타너스(Platanus Tree)>, 2022, oil on canvas, 227 x 182cm



최재영, <등나무(Wisteria)>, 2022, oil on canvas, 227 x 182cm

전시전경



충북문화재단 기도메타

충북예술인을 위한 전시 공간인 충북갤러리는 지난 전시계기로 총 6군 현대미술의 세력을 알리는 8인 예술인 8인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잊혀진 자취를 발견하기를 희망하며 충북미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이후 충북 작가들에 관한 관심과 지역의 미술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문화재단은 충북갤러리 하반기 기획전으로 <충북 청년 작가 8인전(최규락, 함학삼, 신용재, 최재영, 이규원, 이은아, 노경민, 김승연) - '기도메타'> 전시를 기획하여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예술적 고인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신화 또는 문명에 모든 글자가 부여된 전략을 뜻하는 '기도메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예술과 삶, 생명의 지평을 보다 넓게 하여 서로를 걸 작업에 걸고 노력하는 청년 작가들의 품구 없는 경직적 삶의 그림자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충북 청년 작가 8인전 -기도메타>은 일종의 8인의 지향점으로 각자의 예술적 양식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왜, 예술을 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앞서 실례는 마음과 시시각각 변하는 문맥을 시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들의 작업을 규명할 권고 없이 분류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영역으로 그들의 표현방식을 찾아보고자 했다. 본 전시를 통해 당대적 관객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며 새로운 실험적 표현영역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에 이들의 역사가 함께 충북미술의 내일을 이룰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작가약력

김승현

KIM SEUNG HYUN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미술과 조각전공 졸업 (청주, 한국)
교토시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조각전공 졸업 (교토, 일본)

개인전

2021 <낮선 우아함>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장 (청주, 한국)
2019 <隠された自分 ▪ 隠す自分 camouflaged> Azabujuban gallery
(동경, 일본)
2019 <가려진 나 ▪ 가리는 나 camouflaged> 청주시립미술관 오창 (청주, 한국)
2019 <CAMOUFLAGE> Maronie gallery(교토, 일본)

주요 단체전

2023 <재생버튼>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2021 <낮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20 <LAYERD COMPETITION & EXHIBITION> 갤러리 레이어드 (부산, 한국)
2020 <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와동분교, 탄약정비공장, 홍천미술관 (홍천, 한국)
2019 공시공시 2019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한국)
2018 <자화상전(自我像展)> 마로니에 갤러리(교토, 일본)
2017 한일교류전<OJYAMA> 교토시립예술대학(교토, 일본)
2017 <OPEN STUDIO "~5"> A.S.K 레지던시 (교토, 일본)
그 외 다수

프로젝트 전시

2022-23 <예술가를 배우다> 동부창고 (청주, 한국)

선정

2020 레이어드 신진작가공모 선정, 갤러리 레이어드(부산, 한국)
2019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창작환경지원사업 개인전 개최,
충북문화재단(청주, 한국)

레지던시

202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7 A.S.K 레지던시 (교토, 일본)

노경민

RO GYEONG MIN

2011 세종대학교 회화과 한국화 전공 졸업
2015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22 그림자의 춤, 그 어떤 갤러리, 청주
2021 빈 곳,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2019 아마도,오아시스, 인디프레스갤러리, 서울
2019 물속에서,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7 밤의 위장(胃腸), 신미술관, 청주
2017 귀빈장(V.I.P Motel), 상업화랑, 서울
2016 그 때의 일기장, 숲속갤러리, 청주
2015 혼자만의 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4 시(詩), 갤러리 팔레 드 서울, 서울

주요 단체전

2023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청주창작스튜디오, 청주
2023 스미다 머무는,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9 겨울동인, 인디프레스갤러리, 서울
2018 영혼의 역사, 인디프레스갤러리, 부산
2018 인디프레스 상설전, 인디프레스갤러리, 서울
2018 패러다임 뉴 아트, 쉐마미술관, 청주
2018 얼굴로부터, 위켄드, 서울
2018 내일의 작가,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7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그 외 다수

수상경력

2018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 대상

작품소장

겸재정선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20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신용재

SHIN YOUNG JAE

2012 한남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졸업
2014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1 "e해가지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는', 햇빛이 잘 드는 이곳, 청주
2020 "e매일의 송가', 챗터투, 서울
2017 "e오아시스',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2016 "e기록 무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5 "e기록, 낯선 곳의 기억', 갤러리 아트플로라, 김해
2014 "e기록,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보니데 갤러리, 대전
2013 "e기록, 그 첫 번째 시작',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미술전시실, 대전

주요 단체전

2022 누구에게겐 그럴 수 있는,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그 어떤 시선, 그 어떤 갤러리, 청주
2021 그리고보다, 아트스페이스광고, 수원
2021 스튜디오, 쉼마미술관, 청주
2020 유령: 시간이 어긋나 있다, 공항로29 공전원, 청주
2019 ILLUSION:ELUSIO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
2019 메타매칭,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2019 토끼 추격자, 쉼마미술관, 청주
2018 이동하는 방법, BRT작은미술관, 세종
2017 10X10 청주야행-예술로 점포재생 프로젝트, 퍼블릭에어 향교, 청주
2017 Dual Narrative:지평선 위에 서서, 챗터투, 서울
2017 Window Site Vol 1: CJAS Collection,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6 도큐먼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6 Hybrid_새로운 시각,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그 외 다수

레지던시

2018 챗터투 입주작가
2016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5 창작레지던시 외동 입주작가

작품소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한국병원,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이규선

LEE KYU SUN

2015 서원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개인전

2022 <이규선 Collection> 이안테라스, 청주

2022 <Someone's things> PA갤러리, 청주

2021 <잉여로운 행위의 서막> 이 작가의 사생활. 갤러리, 청주

주요 단체전

2023 <Something Everyday> 예술공간, 청주

2023 <어쩌다 마주친 것일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3 <부드러운인생> 쉼마미술관, 청주

2023 <네오아트센터 개관전> 네오아트센터, 청주

2023 <제 5회 청주현대미술작가회 Oasis 2023> 청주교육대학교미술관, 청주

2022 <다수의 시선> 충북문화재단 숲속갤러리, 청주

2022 <예술행동> 우암창작소, 청주

2022 <숲과 사람 그 사이> 이규선, 최재영, 신용재, 이은아 4인전, PA갤러리, 청주

2022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제 4회 청주현대미술작가회 Oasis 2022> 청주교육대학교미술관, 청주

2022 <2022아트바자르> PA갤러리, 청주

그 외 다수

선정 및 수상

2022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지원사업선정

2021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지원사업선정

2018 아트청주 신인미술상

2017 남농미술대전 특선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좋은 작가상

2014 제 39회 충북미술대전 시장상

2012 제 6회 대한민국 에로티시즘 입선

레지던시

2023-2024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청주

작품소장

충청북도도청, 흥덕구청

이은아

LEE EUN A

2019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국립장식 미술학교 비디오 아트과 석사
최우수(Félicitation du jury) 졸업
2017 프랑스 파리 8대학 미술 대학원 미학 및 현대미술사학 석사 2차 수료
2015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부 우수(Mention Bien) 졸업
2011 대한민국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2 «밤으로부터 II» 충북문화관, 청주, 대한민국, (충북문화재단 후원)
2022 «밤으로부터 I», 가람신작, 청주, 대한민국, (충북문화재단 후원)
2022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대성비디오, 청주, 대한민국

단체전 및 상영

2023 «지금, 여기서 우리» 향유갤러리, 전주, 대한민국
2022 «다수의 시선»,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한국
2022 «예술행동» 우암창작소, 청주, 대한민국 - 충북지역문화거점사업 일환
2022 «하늘과 땅 그 사이», Gallery PA, 청주, 대한민국 - 충북지역문화거점사업 일환
그 외 다수

경력사항

2023 갤러리 바지우 Gallery Vazieux Paris, 한-불, 아트부산, 부산, 대한민국
2022 갤러리 바지우 Gallery Vazieux Paris, 한-불, KIA프 KIAF Seoul,
서울, 대한민국
그 외 다수

큐레이션

2023 «꿈은 제목이 없다 Dreams Have No Titles»
- 광주 비엔날레 프랑스 파빌리온, 광주, 대한민국
2022 «다수의 시선» -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대한민국
2022 청주시문화재단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예술가를 배우다 프로젝트 - 꿈으로부터»

선정 및 프로젝트

2023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창작활동연속지원 사업 선정
2022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사업 선정
2021 아르코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 - TOP11 우수작 선정

최규락

CHOI KYU RAK

2010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자전공 졸업

2007 청주대 공예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22 시차적관점, 다다 프로젝트, 서울

2020 시차적 관점, 최규락 개인전, 청주시 한국 공예관, 청주

2019 너 나 우리 모두 전, 2019 세라믹 루키 초대전, 클레이 아크 김해 미술관, 김해

2019 영웅들의시대. 아트스페이스엡, 서울

2017 최규락 개인전. 장수미술관 기획초대전, 장수

2017 도자일기.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16 자화상 흙으로 그리다. 동부창고 34갤러리, 청주

2015 경계를 위한 상실. 청주시 한국공예관 기획초대전, 청주

2014 최규락 도자 조각전.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12 최규락 개인전.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11 흙으로 빛은 사람들.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09 최규락 개인전. 청석갤러리, 청주

주요 단체전

2021 "Wrapper" TseGlyna gallery.Kiev,키예프. 우크라이나

2021 진천공예마을 c+국제교류전, 무풍화비,진천 공예미술관 진천

2021 c+국제 교류전, 장수 미술관, 장수

2020 무심회화전, 갤러리청주, 청주

2020 한중교류전, 조우여상처, 쉐마미술관, 청주

2020 서원경 산책, 쉐마미술관, 청주

2020 현대미술 오아시스전, 청주교육대학교 갤러리, 청주

2020 Devinim online 2020 international ceramic exhibition, 터키

2020 도자 장신구 협회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어와 만세 백성들아전 윤슬미술관 초대전, 김해

그 외 다수

작품소장

청주 시립 미술관 (청주2020), 장수 미술관 (전북 장수2019),

mehmet nuri Göçen foundation of culture, education and art (터키2019),

실파콘대학교 펫차부리, 태국(2018,2019), 인도한국 문화원(2017), 청주시 한국

공예관(2017)

최재영

CHOI JAE YOUNG

2012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2022 기질을 머금은 물감 덩어리, 갤러리 오뉴월, 서울
2021 Easter Eggs Puzzle, 스페이스xx, 서울
2020 "eCritical Point" f, 오뉴월 이주현, 서울
2015 Human scape,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2015 Hopeful days,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3 Asian report, Hive space A, 청주
2013 The gap, New space art foundation, Hue, 베트남
2012 The paradox of the smile, Hive space A, 청주

주요 단체전

2022 EXODUS, K11 MUSEA, 홍콩
2021 Demado Project, Hrd 갤러리, 교토, 일본
2021 스튜디오(STUDIO)전, 쉐마미술관, 청주
2021 퍼블릭아트 뉴 히어로,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2020 국제미술의 혼돈과 경계, 쉐마미술관, 청주
2018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6 홈 그라운드,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6 5 dsay 전, Art space a, 청주
2016 도큐먼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5 머무르다, 우민아트센터(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 청주
2014 아웃 데어 Out There-거기 밖에 무엇이 있을까?, 미부아트센터, 부산
2013 대전 AR festival, space see, 대전
2012 Drawing route, Hive space A, 청주
그 외 다수

레지던시

2014 Artist village, 싱가포르
2014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청주
2013 New space art foundation, Hue, 베트남
2012 Andra University residency program, Viz, 인도
2012 2013 Hive camp, 청주

작품소장

2020 청주시립 미술관

황학삼

HWANG HAK SAM

충북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졸업
충북대학교 미술과 조소 전공 졸업

개인전

2020 "e서있는 사람들'- 청주 미술 창작스튜디오(청주)
2018 MUTE-웅크린 사람들-청주 시립 미술관 오창 전시관 (청주)
2018 "ehuman stain"f-챗터투 미술관 (서울)
2016 "e불완전한 기동展"-청주 시립 대청호 미술관 (청주)
2012 "e바람 부는 날"-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청주)

초대 개인전

2021 THEO 갤러리 기획초대전(서울)
2020 소나무갤러리 기획초대전 (대구)

부스 개인전

2019 제 9회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주요 단체전

2022 "e하이브리드 바톤: 비정형의 향연' 갤러리 바톤(서울)
2021 "eNOVA APERIO"f청주 공예비엔날레 미술관프로젝트-우민아트센터(청주)
2021 "e퍼블릭아트 뉴 히어로 "f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청주)
2021 공사중(UNDER CONSTRUCTION)-청주 미술 창작스튜디오(청주)
2020 "eBlack Humour"f-챗터투 야드(서울)
그 외 다수

수상

2019 경기미술대전 특별상
201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2013 광화문 국제 아트페스티벌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2012 예천 곤충 바이오 엑스포 전국공모 당선
2010 제21회 mbc 한국구상 조각 대전 대상 수상
2007 제18회 mbc 한국구상 조각 대전 장려상 수상

작품소장

청주시립미술관, 양구 야외조각공원, 평택소방서, 예천 곤충박물관,
청주 고려동물병원, 상주삼백테마조각공원, 삼진벽난로 본사

충북갤러리 기획전

기도메타

PRAY META

2023.

11.8.wed – 11.20.mon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